
동맥경화성 심장질환자에서 경동맥의 심한 협착은 얼마나 발견되나?

서울아산병원 방사선팀

김현진, 이선아, 이영환, 이용문

목 적 : 동맥경화는 전신의 혈관질환 이지만 부위에 따라 침범시기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의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경동맥의 심한 협착 여부를 도플러 검사에서 그 빈도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서울 아산병원에서 2002년 한해동안 경동맥 도플러를 받은 500명의 환자 중 70%이상의 심한 경동맥 협착이 발견된 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평균나이는 59세(32~86)이었으며 남녀 비는 8:2(남 46, 여13)였다.

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검사환자는 388명으로 73%를 차지하였다. 반면 신경과 환자는 64명으로 12%를 차지하였다. 도플러 검사는 2명의 Sonographer와 2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시행하였으며 경동맥의 협착 정도는 혈류 속도와 지름협착(Diameter stenosis)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. 장비는 HDI 5000(Philips, Netherland) Color Doppler기기를 사용하였으며 L12-5P probe를 주로 사용하였다.

결 과 : 경동맥의 심한 협착은 11%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.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의 심장질환 환자에서 경동맥의 심한 협착은 일부(7%)에서만 관찰되었다. 신경과 의뢰환자에서는 38%에서 심한 협착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전체 심한 협착의 41%를 차지하였다. 전체적으로 양측의 심한 협착이나 폐색은 10명에서 확인되었다.

결 론 : 심장질환자의 경동맥 협착은 약 7% 정도로 추정되며 이러한 수치는 심장질환자의 도플러 검사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.